

‘광주형 일자리’ 현대차 공장 설립 무산되나

지역 노동계 이탈로 협상 난항
군산시, 현대차 상대 적극 구애
광주시 서둘러 마무리 못하면
낙후 탈피 좋은 기회 놓칠수도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함께 투자하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 지역노동계의 이탈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산 등 다른 지역에서 정부, 현대차를 상대로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지역 경제가 급속히 쇠락하고 있어 상당한 명분도 쌓은 상태다.

2일 광주시, 군산시 등에 따르면 군산시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된 일련의 협상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정부, 현대차 등을 상대로 자동차 공장 유치에 나섰다.

자동차 부품업체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다, 임금을 낮춰 일자리를 더 창출하자는 의지도 높다는 것이 군산시의 설명이다. 군산시는 지난 3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사)군산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 군산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전북도, 군산시, 호원대, 군장대, 군산발전협의회가 후원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 군산 도입을 통한 군산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 전략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이후 지역 분위기도 호의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미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등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대구, 구미, 군산 등 다른 지역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델의 최초 적용 도시가 광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군산형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 경남형 일자리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채행석 군산시 기업지원과장은 “현대차와 공식적인 접촉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짜사랑’에 불과하다”며 “광주보다 더 여건이 어려운 군산시가 자동차 기업 유치가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가 서둘러 지역 노동계를 설득해 현대차와의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자칫 명분과 실리 모두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노동계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로 한 것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며, 신규 차종을 생산해야 하는 현대차 입장도 고려해야



▲ 코스모스 한들한들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2일, 광주시 북구 충효동 광주호 호수생태공원의 코스모스 밭에서 시민들이 사진찍으며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했기 때문”이라며 “지역노동계가 진지하게 지역 미래를 고민하고 광주시와 함께 현대차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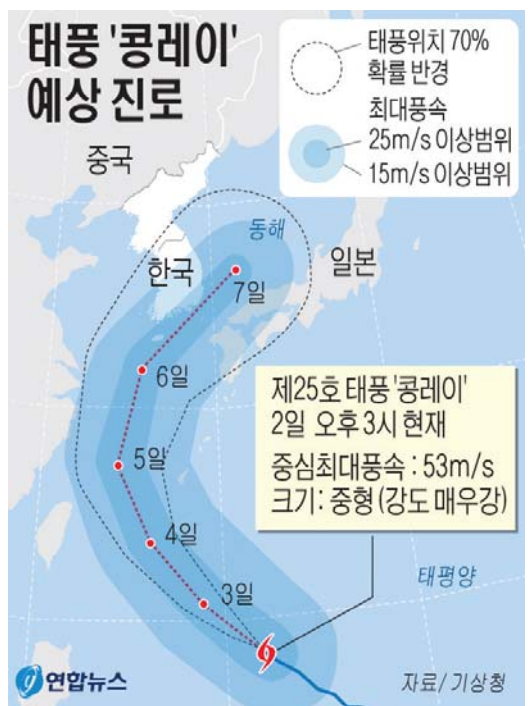
한편 광주자연과학고, 광주공고 등 13개 광주 직업계고 교장단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광주시·현대차 완성차 공장 투자유치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은 매년 지역 내에 일할 곳이 없어 먼 타지로 떠나고 있으며, 현장의 교육자이자 지역의 어른으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낀다”며 “이제 갓 성인이 된 아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을 떠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광주에 현대 자동차 위탁 물량을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부품 공장을 비롯해 다양한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시와 관련 기관(단체)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태풍 ‘콩레이’ 북상 ... 주말 남해 통과할 듯



매우 강한 중형급 상륙 가능성도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이번 주말 남해를 통과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전남 서남해안 지역의 피해가 우려된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괌 주변에서 발생한 ‘콩레이’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100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4km로 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인 ‘콩레이’의 중심기압은 920hPa(헥토파스칼)로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53m(시속 191km), 강풍 반경은 400km다.

‘콩레이’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계속 북서진한 뒤 5일 오후 점차 북동 쪽으로 방향을 바꿔 이번 주말인 6~7일 남해상을 지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다만,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 예상보다 다소 북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이 경우 ‘콩레이’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도 있다.

기상청은 “금요일인 5일께 북서쪽으로 접근하는 상층 기압골과 만나 북동쪽으로 전향하는 시점에 진로가 유동적”이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태풍의 영향으로 4일 오후에는 제주도과 경남 해안에 비가 시작돼 5일 충청도와 남부지방, 6~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태풍이 남해를 지나는 6~7일에는 제주도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연말뉴스

The 18th FINA World Championships Gwangju 2019

제18회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DIVE INTO PEACE

평화의 물결 속으로

선수권대회 : 2019. 7. 12. ~ 7. 28. (17일간)
마스터즈대회 : 2019. 8. 5. ~ 8. 18. (14일간)

장소 : 광주광역시, 여수시 | 참가 : 200여개국 15,000여명
종목 : 경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 수영, 오픈워터 수영, 하이다이빙

www.gwangju2019.com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Official FINA Partners

Institutional Partners